

### 7.4.2. 독립제작사 직무별 종사자 현황<sup>36)</sup>

2009년 독립제작사의 직무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직이 1,363명으로 전체의 28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다음으로 PD가 1,329명으로 28.0%, 관리/행정직이 1,029명으로 21.7%, 기타가 635명으로 13.4%, 영업/홍보직이 339명으로 7.1%, 아나운서가 53명으로 1.1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독립제작사는 산업 특성상 제작 위주의 산업이므로 PD의 종사자수가 가장 많으나,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PD를 제외한 제작과 관련된 인력은 프로젝트별로 외부에 의뢰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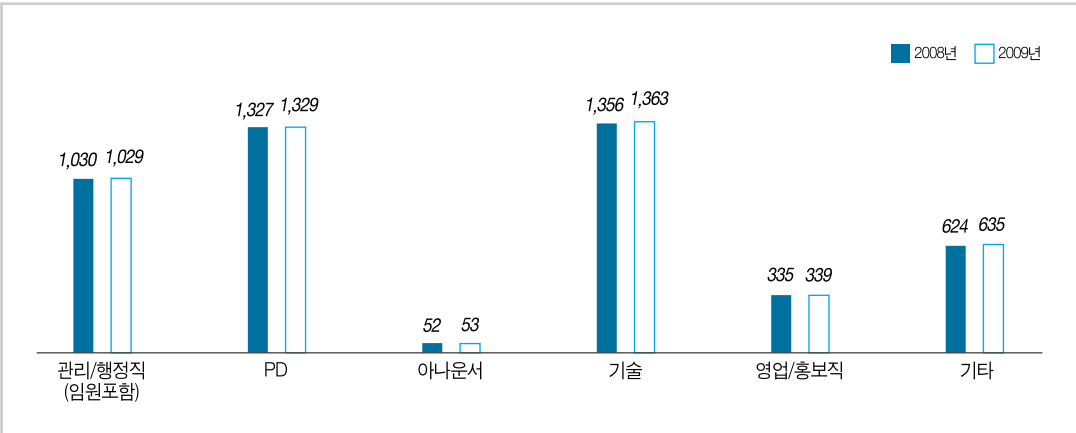
표 4.7.29 독립제작사 직무별 종사자 현황

(단위: 명, %)

구분	관리/행정직 (임원포함)	PD	아나운서	기술	영업/홍보직	기타	합계
2008년	1,030	1,327	52	1,356	335	624	4,724
2009년	1,029	1,329	53	1,363	339	635	4,748
비중(%)	21.7	28.0	1.1	28.7	7.1	13.4	100.0
전년대비증감률(%)	▽0.1	0.2	1.9	0.5	1.2	1.8	0.5

36) 독립제작사만 해당

그림 4.7.32 독립제작사 연도별 직무별 종사자 현황 (단위: 명)



IV. 콘텐츠산업동계조사 부문별 결과